

2012 새해에는

4 송문헌 광주고용노동청장

“3천개 청년 일자리 창출”

“광주·전남은 노사평화지대입니다. 지난해 불법 분규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송문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6일 청장실에서 “(광주에)와보니 서울서 보는 강성이미지와는 다르다”며 “광주·전남은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분규 건수는 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2.9% 감소했고, 근로손실일수도 1만9734일로 전년 5만1779일보다 61.9% 크게 줄어 들었다.

송 청장은 “광주·전남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제조업이나 근로조건이 좋은 중견기업의 비중이 낮은 등 고용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곳에서 불법 분규가 만연한다면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어 천만다행이며 사업활만한 곳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청장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1926명이 청년턴으로 취업해 이 중 1658명인 86.2%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2배 많은 3000여명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순환시스템’을 제시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합당한 납



대기업 근로감독 강화 산재예방 활동에 주력

품단이 쥐야, 그 이익으로 기술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화 해 직원들에게 임금과 복지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청년들도 중소기업에 취업할 거라며 대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납품단가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등 대규모 사업장 및 교대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송 청장은 “자동차 업계의 장시간 근로환경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주간 2교대 또는

3교대제로 전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사람을 많이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실습생 사고와 관련해 송 청장은 “대기업이 고등학생을 장시간 근로시킨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며 “지난 3월부터 10일까지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교 실습생과 연소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준수 등을 중점 감독하고, 특성화고를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인권도시에 걸맞게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송 청장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산업재해율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심일터를 만들어가겠다”며 “특히 시·군 단위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자치단체 위탁업체, 용역·도급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송 청장은 서울 출생으로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광주종합고용센터 소장,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도 맛 홍보·매출 증대·지역 브랜드화 공헌

백화점 설 특산품전 ‘일석삼조’

지역 백화점들이 설 명절을 맞아 마련한 지역 특산 설 선물세트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각 백화점은 지역명품 특산물 발굴로 프리미엄 세트를 구성해 고객만족도와 매출을 높이면서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의 브랜드화에도 공헌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광주신세계는 장흥육포, 나주신고, 장성사과, 감진 표고버섯 등 지역특산물 우수 상품 및 증가테마의 선물세트를 대량 기획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역 특산 과일과 굴비, 조기 등 선어제품외에 백양사 꽃감, 장흥무산김 세트, 영광 청보리 한우, 보길도 참 전복 등 프리미엄급 지역 명품 선물세트도 인기가 있다.

김덕환 광주신세계 식품 바이어는 ‘지역 특산물 세트는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특산물을 발굴해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영광 범성포 굴비세트, 완도 전복세트, 여수 멸치세트, 완도 김, 화순 친환경 버섯, 나주 친환경 배, 장흥 표고버섯, 담양한과, 한국제과의 보성 녹차등 우리지



“지역 농산물로 건강 선물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농수산물의 80%를 지역산품을 취급하고 있다. 올 선물 세트로 마련된 장수사과와 나주배.

역 특산물전을 펼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의 원산지를 생생한 동영상 정보로 볼 수 있는 오감(五感)만족 상품을 준비해 고객 만족을 충족 시킬 계획이다.

이외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고품격 프리미엄급 선물도 준비했다. 전국적 수량이 1000마리도 안되는 명

품토종한우 ‘울릉쇠소’(4.2kg 610,000원)는 육질과 마블링이 최고를 자랑한다.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어획한 참조기만을 엄선해 천연 황도염으로 삶아낸 만든 굴비선물세트 황도염 굴비특선(29cm, 10마리·100만원)와 청정바다 해조류만 먹고 자란

완도 전복 프리미엄 세트도 인기가 있다.

전용택 롯데백화점 광주점 영업총괄팀장은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농수산물의 80%를 지역산품을 취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우수산품을 발굴해 지역산품의 브랜드화에 공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현대오일뱅크 ‘금연’ 도전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대산공장 등 전국 사업장을 금연 사업장으로 선언하고 전 임직원이 금연에 도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각 사업장의 실외 지정 장소에서는 흡연 및 일과 시간에 제한적인 흡연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흡연구역을 없애고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도 출근길에 담배와 라이터를 갖고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직원에 대해 서면 경고를 포함, 인사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광주세관 설맞이 수출입 특별 지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세화)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수출입업체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특별지원팀 가동’ 등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제수용품·생필품 및 수출용 원자재 등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선적을 위한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야간에 통관 가능한 ‘상시수출입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제수용품 및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신

고제도를 활용해 적기 공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필수품인 제수용품과 할당관세 대상품목 중 즉각적인 유통이 필요한 물품(돼지고기·마늘·고등어 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소비자 불가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출입업체의 설 명절 자금수요에 따른 환급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일까지 12일동안 근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해 일과시간 이후에도 환급 처리가 가능토록 운영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편의점 이번엔 ‘밥상’ 전쟁

국·찌개·반찬 등 간편식 20여종 출시 경쟁

작년 도시락 제품으로 경쟁을 벌인 편의점 업계가 올해는 즉석국과 반찬 등 가정 간편식(HMR : Home Meal Replacement) 제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작년 도시락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편의점들이 올해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집에서 대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HMR 제품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다음달 김치찌개와 육개장 등 20여 종의 HMR 상품을 일제히 출시하며 HMR 시장에 가세할 계획

이다. 회사는 여러 협력업체와 제품개발을 협의 중이며 즉국, 찌개뿐만 아니라 장조림과 같은 반찬류도 선보일 예정이다.

작년 7월 허영만 작가와 손잡고 HMR 제품 브랜드인 ‘식객’ 5종을 출시한 GS25도 상반기 중 식객 브랜드를 2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식객 브랜드는 부대찌개와 갈비탕 등 5종이 있으며 여름철 보양식으로 반계탕과 닭 한 마리를 판매하고 있다.

웨이마트도 작년 11월 말 김



치찌개와 닭발구이 등 HMR 10종을 출시하며 HMR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올 상반기 상품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레토르트와 즉, 수프, 즉석면, 즉석밥 등 HMR 유사 상품군의 매출이 매년 40% 이상 성장해 작년 말에는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연행뉴스

농협 ‘직장인 우대통장’ 출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10일 급여통장 가입자에게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채움샐러맨 우대통장’을 출시한다.

이번 상품은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전자금융 및 자동회기 등 금융수수료 면제 ▲평잔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최대 연2.0%) ▲스마트뱅킹을 통한 채움저금 가입 시 우대금리 최고 1.0%p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만20세 이상 개인(1인1계좌)이며, 대상에 포함되는 저축예금과 보통예금이 가입되어 있는 고객은 본 상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올해 사업구조개편 원년을 맞아 더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고객과 농업인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http://www.hankukjead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선정
-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 L.A 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업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광주 현대점 : 062)510-7040, 목포 차생원 : 061)281-1002, 서울 차생원 : 02)730-2983,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

T.222-2902.3973,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결핍도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술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실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090204-중-4738호